

# 원하는 제품 알아서 ‘척’... AI 마테크 솔루션 경쟁 치열

(마케팅+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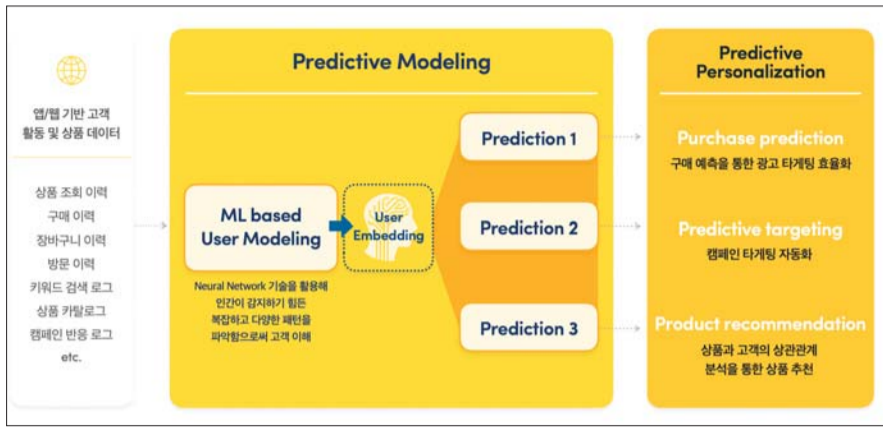
**스켈터랩스** 고객의 다음 활동 예측 플랫폼이 차별화된 개인화 경험 **가이온** 美 솔루션사와 시장 공략 **오드컨셉** 소비자 쇼핑히스토리 분석

‘엔택트(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따라 이커머스를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면서 쇼핑몰 등의 초개인화 마케팅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마테크(마케팅+기술) 솔루션 시장 경쟁이 뜨겁다.

4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켈터랩스·플래티어·가이온·오드컨셉·빅인사이트 등 AI 솔루션 기업들은 AI 마테크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기능을 대폭 혁신한 신제품을 내놓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마테크는 ‘마케팅(Marketing)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용어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00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14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탐색하고 접근을 더 정확히 해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먼저 제안하는 초개인화된 마테크 솔루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스켈터랩스 AI 초개인화 마케팅 솔루션 'AIQ.AWARE' 예측 모델링. /스켈터랩스

있다.

스켈터랩스는 최근 초개인화를 위한 AI 마테크 솔루션인 'AIQ.AWARE'를 출시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웹 기반 사용자 활동 데이터 및 상품 카탈로그,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을 이해하고 다음 활동을 예측하는 '예측 모델링'에 기반하고 있다. 마케터가 캠페인이나 제품에 따라 타겟팅해야 하는 고객을 추천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게 목표다. 스켈터랩스는 AIQ.AWARE를 통해 세밀한 고객 타겟팅을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푸시 알림 오픈율이 10% 증가하는 효과

를 거뒀다고 밝혔다.

스켈터랩스 관계자는 “국민의 91.4%가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처럼, 다양한 구매 정보 속에서 소비자들이 초개인화 서비스를 실생활에서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테크 기술이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준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켈터랩스는 또 향후 ‘행동 모델링’ 기능을 통해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플래티어는 이커머스 비즈니스에서

개인화를 실행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개인화 마테크 솔루션 ‘그루비 시즌2’를 최근 출시했다. 그루비 시즌2는 AI 기반으로 이커머스 고객에게 차별화된 개인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품은 조합이 가능한 56개 고객 세그먼트 타겟팅 변수 ▲21가지 국내 최다 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탑재된 개인화 상품 추천 ▲99% 확률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AI 캠페인 자동 최적화 등 기능을 제공한다.

플래티어는 현재 제품을 먼저 체험하고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루비 파트너스’를 모집 중이며, 제품 출시를 기념해 마케터 대상 경품 증정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가이온은 미국의 마케팅 솔루션 전문 기업 어쿠스틱과 손잡고 국내 마테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어쿠스틱은 IBM의 마케팅 플랫폼 및 커머스 솔루션 제품들을 인수해 설립한 기업으로, 마케터가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제품을 제공한다. AI를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웹 및 모바일 경험을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가이온은 어쿠스틱과 국내

독점 총판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환경에 맞는 고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오드컨셉은 최근 AI 마테크 솔루션인 ‘픽셀’의 기능 중 ‘픽셀 스타일’과 ‘픽셀 애드’의 기능을 크게 개선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픽셀은 초개인화 트렌드에 맞춰 이커머스를 이미지의 가장 작은 요소인 픽셀 단위로 분석해 원하는 콘텐츠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패션 분야의 AI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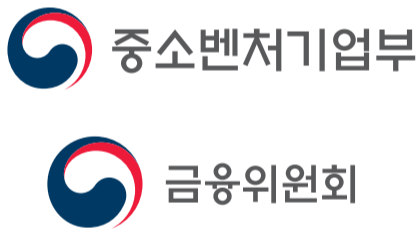
픽셀 스타일에서는 상품 데이터와 쇼핑 히스토리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아우터, 신발 등 5개 품목의 스타일링을 한번에 제안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또 픽셀 애드에서는 소비자 개인 쇼핑 히스토리를 AI로 분석 후 취향에 맞는 스타일의 상품을 추천해 패션 이커머스로 유입되게 도와준다.

빅인사이트는 고객 데이터 중 방문 유형·구매수 등 지표를 설정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개인별 상품 추천을 하는 ‘빅인’을 선보이고, 700여개사를 월정액 기반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 회사는 빅인을 전문몰 등 업종에 특화된 AI 제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퇴직한 전문가 활용 中企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협업  
재무·회계분야 퇴직 신중년 모집  
중기에 관련 분야 컨설팅 최대 12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박연선 중기부 장관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해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까지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예정)

인력을 모집하고, 중기부는 기본교육 및 직무역량 검증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분야 현장코칭 지원인력으로 활용한다. 참여 중소기업은 재무·회계 분야 컨설팅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기본교육은 한국산업은행 등 23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컨설팅(코칭) 방법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제 2차 기본교육은 이달 8~9일 사이

에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전문가와 재무·회계분야 구인기업을 매칭해 현장코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과 기술·경영분야 직무 숙련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시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다.

반면, 금융권은 조기퇴직 등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애로 수요 등과 연계해 퇴직(예정)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코칭, 숙련인력으로 조기 육성·공급하는 것으로 도입 첫 해엔 중소기업 134개사에 구직자 260명을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권평오 코트라 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김인선 한국사회적경제기업진흥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코트라, 사회적경제기업 글로벌 진출 협력

KOTRA(코트라)가 ‘세계로 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코트라는 3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한국사회적경제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기업 글로벌화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수출 마케팅 ▲투자유치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등 분야에서 손을 잡

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성장이 가속화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공공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이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코트라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패키지, 수출마케팅 사업과 우대제도 등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롯데글로벌로지스 2회 연속 경영시스템 우수기업

한국경영인증권 주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한국경영인증권이 주최하는 2020년 경영시스템 우수기업상에서 ‘품질경영시스템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권(KMR)은 2017년부터 ISO 인증을 3년이상 유지하고 조사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객심심사가 끝난 50인 이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품질, 안전·보건, 환경 총 3개의 부문으로 나눠 심사 후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인 기

업을 ‘경영시스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품질경영시스템 우수기업’ 부문에선 처음으로 2회 연속 선정돼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품질개선활동을 유지해 온 경영성과를 공식적으로 다시한번 인정받게 됐다.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는 “최초로 2회 연속 선정된 것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우수한 품질 경영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철저히 관리한 점 때문인 것 같다”며 “앞으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왼쪽)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에서 ‘품질경영시스템 우수기업’ 부문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도 품질경영 시스템 우수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대·중기협력재단 기술보호 온라인교육 무료 제공

6개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해오던 기술보호 교육을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6개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해 해당 교육기관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이수한 중소기업에 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교육 과정은 기술보호의 필요성, 실무적인 보안기법 등 중소기업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웹툰을 활용해 제작했다.

상시 제공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기술보호 인식을 높이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